

唐帝之大醉也 | 오此는非徒唐帝之醉也 | 라是朝廷之大醉也 | 오此는非徒天下之醉也 | 라是後世之大醉也 | 라是天下之大醉也 | 오此는非徒天下之醉不以爲怪而疾之打之 | 고猶載於書籍 | 야歆羨稱奇 | 此非後世之大醉者乎아故로今日東土兩國의文病者가大醉不醒 | 야偃臥不起 | 고八千載祖國之疆域은任他外人之凌踏 | 면四億萬自國之同胞는任他異族之虐殺 | 고小不動念 | 此文病者の大醉를將用何藥而救療 | 오릿가古語에云호타魚在水中故로魚不知水 | 라이엇손則此支那通國이無非文病大醉人인故로必然自己의自病을自不知 | 야今日萬國의文明之氣가天地에充溢 | 고銃砲之聲이海陸을震盪 | 는熱鬧場中에서猶此酗酒만오니何日何時에 實物을積蓄 | 立實事를履行 | 야人格을成就 | 면國體를成様 | 오릿가先生이聞罷에微笑曰今日足下之言이此支那가事物의 實地는不足

하고文華의虛飾이有餘 | 흥으로人格과國體를喪失이라 | 허되以大眼目으로此支那를考評 | 豐진된又有不然 | 험者 | 라足下之言에物勝於事 | 고事勝於文이면國必興旺 | 고文勝於事 | 고事勝於物이면國必消亡 | 이라 | 허엇스니此는支那文弊에痼疾된現狀만料度 | 험者 | 라天地의原理는窮究치아니 | 험者 | 라다抵物이란거손形質이有 | 험者 | 라오事이란거손形質을隨 | 야進止 | 험者 | 라文이란거손事物之外에自在 | 야影響만作 | 험者 | 라事與物은原來虛實과善惡이有 | 험者 | 라人生의損益과邦國의興亡을能作 | 험자 | 라事物이未備於影響된文字란것손雖或風教를腐敗케 | 떠人道를蚩昧케 | 험자 | 라國體民族의甚大損害를作 | 험자 | 라事物이未備한 | 험자 | 라或肆橫 | 험자 | 라弊端이有 | 험자 | 라여도事物이擴張實進 | 험자 | 라所謂文字를거손不過事物의動靜을隨 | 야服役 | 험자 | 라事物이未備오 | 半点도獨立의權能이無 | 험자 | 라何必憂慮 | 험자 | 라리오此等微弊의所

從來를 言之す량이면 三唐宋元明清間에 所謂士林의 無據를 行爲로
可憎한 鏡花水月의 紙上空文으로 曰是曰非す야 今此世道를 寂禎케
흐앗스나 滅國의 褒患은 乃無흔者니니 雖今日이라도 人道의 真境을
覺悟す고 事物의 正道에 人す야 大踏步로 進行할 줄이 라不然 則當
此時代す야 滅國滅種之患이亦是天然公例라 흔니 나라夫人身의 元
氣가 充實す면 邪氣가 侵入치 못하고 國家에 正道가 開明す면 私氣이
自然銷索す니 今此支那가雖曰文華劣等國이나 物品의 實地와 事
爲 외 實行을 開導す량이면 人間腐俗에 所謂詩賦表策이나 序記箴銘
이니 흔든 無據之文은 自然風飛雹散과 烟消霧收에 彙한것 시오 紙上
空文의 所謂禮樂文物이나 典章法度이나 흔든 虛妄之說은 自然水流
雲空과 雪消冰解를 作흔者니 有何憂慮한 바니 리오 物學의 正道가
大開す고 物理의 實業이 確立之日에는 所謂文章道德이란 空誕之說
도 亦是自滅흔者니 泰西에서 도己所經驗흔者니 第以泰西之所經

過者를 詳言之 흔리라 泰西古俗을 以觀す면 一年四時에 犧牲酒果로
祭其神而求福す 앗고 星辰의 變遷을 指点す야 一歲吉凶을 判斷す 앗
고 鍊丹之工으로 神仙術을 學す며 道學之論이 有す야 弱賴土德嗜魯
之徒가 心性情之說로 分黨す 앗고 衣冠의 儀式은 長袖幅巾과 廣笠大
帶를 用す 앗고 詩詞騷章에 흔杜娛道와 胡邁之輩가 文章으로 擅名す
았고 軍制를 以觀す면 旗鼓弓刀를 燐張흔者니 其俗尙의 燦然彬彬
之風이 果與支那로 少不相違す더니 忽自近古以來로 褒昆德哥道秀
之徒가 鄭虛崇實之說을 襲出す야 醒世警俗す 앗스며 柳頓瓦姤等의
窮理格致之學이 紛生層出す야 頑波彼古風이 自歸消滅す고 文明富強
의 國體를 成立한者니라 噫此支那域內에 原來正道와 異端이란 二
派가 有す야 自相攻鬪者니 已經數千年에 尚無止戢흔者니 正道一
派을 曰仁義道德이나 禮樂文物이나 三綱五倫이나 孝悌忠信이나 흔
는 名義로 人世를 主持한者也니 오 異端一派는 曰黃老之學이나 刑名

之術이니諸子이니列子이니호는種類로世道에干涉하는者니라此二家의曰是曰非와曰可曰否라호는論難도亦是寥寥寂寂호는紙上空文而已오長短廣狹의寶物된形體나青黃赤白의質定호는色相이無호는者니라故도各其消長盛衰의影響은畧有호는優勝劣敗의形質은乃無호는야墨陣筆鋒만尙此輝煌호는야互相疾妬호는니此亦具眼者로見之호는면其評判이何如호는지未知어니와僕之所見으로言之호는면正道란一派는主大義者니帝王家之不可無者也니오異端이란一派는主哲學者니政治家之不得闕者也니然이나纍纍民族의衣食住等寶物實事와實工實業의一派大道가出來호는여야支那種族社會에一大幸福을享有호는지此等聖人이나此等社會가當道호는日에는所謂正道이니異端이니文病이니호는各種社會가各其本位를追尋호는야秩序를整頓호는者니二十世紀下半紀에는必然支那國旗가天下列強班次中

最上位에挿하는이오支那民族이天下各般社會中最優等에居하는者니今雖矇昧蚩劣이나屈伸消長은定理가自在호는掘起호는萌芽가已現호는으로梁啓超之言에天下民族이俱困호는야도淸國民族은尙存호는다함이氣味를先見하는者니라

蜜哑子니駭然對曰支那之文學이無非紙上空文이라호는았더니今日先生之言論이亦是唇上空談이오便同夢中譖語로소이다此支那의民族之多와物產之豐이未始不甲於六洲로되自負自是之癖으로自傲自滿호는야內治外交에少不動念故로海港之開가今爲七十餘年이오外交之始가今爲五十餘年이로되人才는八股詩로所擇호는고國防으로刀石을尙用호는으로進步는姑勿論호는고降縮이還多호는야越南香港은英法에付屬호는고琉球臺灣은日本에讓與호는고西藏新疆은英國에見侵호는고蒙古半部호는俄國에頽頽호는고旅順口膠洲灣威海衛等各海岸이無非外人之占領者니오內地所謂鐵道礦坑이莫非外人之

干涉者 — 오 輪船銃砲와 各項器械名色이 一無自國之所產者也 —
 오舉皆注文於異邦者 인터二十世紀下半紀에는有何依憑으로 國體
 가偉大하고 民格이 成就하였가 今日支那가 如此悲慘을 當호者는
 其原因이 確有호지라 其原因을 拔本去根치아니면 二百世紀라도必
 無可望이 외다 聖訓에 云 物有本末하고 事有終始라 予斯니 若以支
 那로 期欲發達인연 先次其原因된 三種惡性을 確然拔去後에야 就緒
 之望이 有호者 — 니 此三種惡性은 謂何오一은 不欲爲也 — 오二은不
 欲知也 — 오三은 不知自知也 — 니 此三惡性은 無論 何人하고 家國을
 自滅하는 原素가 될者 — 라 慵懶蒼天이 天下人種의 亂性情을 均是給
 與호실時에 東土人種에게는 有何仇讐호야 如此호惡性情을 換給호
 신비온지 此萬年無疆之國이 今至自滅而尙此不悟호온즉 先生이 或
 者天界에上去호 시거든 上帝께 禮明호 읊서 清國朝鮮兩國에 上等社
 會人種의 三惡心性情을 改良호야 주시도록 周旋호 읊소셔不然則二

十世紀下半紀에 興旺特立은 且置하고 還是 淪滅을 未免일지니 特加
 存念호 읊소셔

先生이 聞罷에 忽然眉宇에 愠色이些浮호야 曰僕이 生前死後數千載
 에 唇上空談과 夢中譖語는 言稱을 未聞호 암호되 今日足下之言이 至
 此過格호니 然則此支那前頭預算호 誤料호며 唇上空談는 裏由를 明
 言之호지여다

蜜唾子 — 亦愠意가 不無호야 不覺遽色而疾對曰 東土人士의 學問程
 度가 莫非紙上空文이라호든 實証을 先此說明호 암호고 先生의 唇上空
 談을 亦復繼達호니 오리다 東土人士의 所謂學問이란거시 三經四傳禮
 記春秋等黃卷冊子를 讀之誦之而已 오復無實地試驗의 身所經過者
 일뿐不啻라 彼黃卷冊子의 時代를 言之호면皆二千年三千年四千年以
 上인즉 伊日時代에 는 大朴이 未散호고 事物이 未備호 으로 不過以口
 舌로 도能하齊民制國호 암고 物力의 實用은 未達호 時代라 故로 齊桓

晉文의 紛合諸候 乎 야 一匡天下 란事業을以觀 乎 오면 擾夷狄尊王室이
 이 운정大호義理와 空虛호名義로이오 賠償의 質物이나 土地의 財源
 을受與者니 아니니와 今日時代는不然 乎 야 虛禮空式은姑置 乎 고 實
 物 實事만 取用 乎 으로或者니人이國家를并吞 乎 는 時에 白馬素車로
 輿轍而縛 乎 야 倚伏納降이 운虛式과稱帝稱臣의 極尊極卑 乎 든 浮禮
 는一切不取 乎 고 還爲反是 乎 야 法國이 安南을 拉食 乎 면서도 其國號
 는 皇帝國을添稱 乎 았고 日本이 琉球를并吞 乎 는 터도 其國君을 一等
 親王待遇로 封爵 乎 았스니 以外樣觀之 乎 면 安南琉球兩國이 尊貴 乎
 乎 되 乎 았스나 以內情言之 乎 면 滅國을未免 乎 는니 名義의虛實이
 若此 乎 고 物力의眞僞가 若此 乎 온디 東土人士는少不覺悟 乎 고 机上에
 黃卷冊子만 坐讀 乎 면서 何是禮樂은 如斯如斯 乎 라 乎 야日夜誦道 乎 들
 何人名節은 如斯如斯 乎 人道德은 如斯如斯 乎 라 乎 야手足을活動 乎 야 紗履纖席을 乎 거나
 一分錢一升米가 從何出來乎 아 手足을活動 乎 야 紗履纖席을 乎 거나

身體를運動 乎 야 種蓏種菜를 乎 면 此는 實地事業이라 毕境口腹에入
 送 乎 實物이 自生 乎 뿐不啻라 小者는身家를保存 乎 고 大者는邦家를
 保存 乎 리로다 故로開明國人種은 空文은 不讀 乎 고 小學校中學校에
 卒業 乎 後專門課에入學 乎 야 實地物理를通曉 乎 고 實物事業의利用
 物品을極究發明 乎 는니是以로自身自家의營產營業도 되야 生前富
 貴도 乎 러니와 自然히 物品에從生 乎 는 稅額이 國庫로轉入 乎 야富強
 의材料를 積聚 乎 는니此는天然 乎 公式이오 弟子의私論이 아닌 則東
 士人士의學文事爲가엇지 紙上空文된的據가 아니오 릿가且先生言
 論에二十世紀下半紀엔 清國이發興이 운말含이唇上空語되 을 証據
 가三條가有 乎 오니 詳聞之 乎 合소서

清國이統一以來三百年에 東西南北의 分列 乎 各邦이無非藩屏의屬
 國이라故로聖節冬至等名節에各邦이方物과 贊文을 賚送 乎 고使价
 를人送 乎 는 터所謂方物이 운거는該國土產에 物晶幾種而已오復無

巨額貨物의來納이 온즉 皇家에서 頒賜하는 物種과 賞銀賞綬等價值
로相较하면 還不及者 - 多矣. 罗서 荐文에 皇位를 尊崇하고 臣分이 賤
卑躬을 特爲嘉尙하고 야 利害는 不顧하고 虛節만 貴重하고 야倨傲한 詔勅
으로 優恤而已. 則此習이 何處로 從出하고 하면 昔에 周室이 微弱하고 야
諸侯가 不欲來朝하고 時에 齊威王이 獨往入朝하고 야 天下上稱善하고 者 -
라以其齊威王의 事爲 를 若以 虛實로 較評하고 진된 其時 周室의 微弱하고
本點은 錢穀甲兵이 乏少하고 根因인 則 齊王이 若以 錢穀甲兵의 實物을
輸送하고 야 周室을 鞏固케 하는 량이면 齊王은雖不入朝라도 周室은 完實
호者 - 니其虛實과 真假가 果何如哉. 오噫 彼古日은 名節을 高尙하고
財力을 卑賤하고 が로 齊王事爲가不過至此호者 어녀와 當今時代는 與
古迥殊하고 야 虛實과 真偽를另擇하고 時代인 則 東土人士의 固執不通
호證據가 一也 - 오

且人生의 生寄死歸之間에 不可歇后者는 物種이라 故로 聖人이 立世

하샤 利用厚生의 有形호物種을 製出하고 後人은 遺意를 承襲하고 야
或發明之하고 며 或研究之하고 야 必乃利益만 計圖하고 난者 - 라 故로 穴居
土處하고 食實衣羽하는 荒茫한 人世가 今則 梁肉之食과 錦繡之服과
臺榭之居와 船車之乘이 即非從天而降下者也 - 오 人生이 格究講透
하야 地面之利와 地中之利를 取得하고 智識을 運用하고 手足를活動
하야 製造의 利益를 發生하고 此는 天下萬邦이 普通한 規列가 된
則誰富誰貧과 勢強勢弱의 差等이必無하고 泰西는 何其富強하고
고 東土는 何其貧弱하고 天氣土質과 人品物產으로 比諸泰西者 1면 無一不足者
若以支那之天氣土質과 人品物產으로 比諸泰西者 1면 無一不足者
이언마는 何由로 聖人의 利用厚生하랴시든 心法를 不遵하고 自暴自
棄하고 国家焉荒穠하고 人力焉殘弱하고 야 今日泰西의 事無限한 凌辱
을甘受하고 지可謂不可思擬하고 다若 or 聖人의 心法을一分이라도 講
究實行하고 았으면 神農氏가 農業을 製始한 지至于 今日에 土地四十九

昧의發明과 土質分析之法과 肥料製作之術과 黃壤赤埴의 宜不宜辨
 別 告 은 格物新篇等 物理學과刈耕耘의 各項器械가必自支那로 先
 出하야지 何嘗經傳도 不讀하泰西에서 從出하야스며 若或聖人의 心
 法을 一分이라도 受而 實行이 則 들軒轅氏가 舟車干戈를 淬出하後今
 日에 蒸瀝車火輪船과 克虜伯回龍銃之發明이亦自支那로 先出하야
 지何必經傳도 不讀하泰西人이製作하야스리오 痛且可疾者丨라 此
 東土人士의 宅心이 떠唇舌노만 聖人聖人하고 聖人의 經傳은 文書만
 讀之誦之하야다가 所謂八股詩風月句의 聯珠對에 移用하기와 詩賦
 騷詞의 章句粧飾하기와 科文과 疏章에 引證說明하는 터만 利用하고
 聖人의 口傳心授하신 道德과 利用厚生하랴는 本志는 實用치아니하
 았습니다 今日受侮於歐人이 岂不自取者乎아 此丨 實地背馳하證據가
 二也丨오

現今讀書士類의 所讀이 何書也丨오 每是論孟庸學等 四書也丨니 此

四書冊子의 本志來歷을 詳言之하오리다 四書主義를以觀하으면 چ
 혀性命之道로倫理를發明하야고 且治平의 大志가亦此包有하者丨
 라倫理則古今이無異하고 遷邇가無別也丨니 人類의 不可不所讀也
 어나와 治平之義는不得注
不注意하者丨라 大抵孔子孟子는 萬古聖人이
 사라以其聖人之心力으로 欲行王道於天下하야或轍環天下하시며
 或遊於齊梁하사 舌弊唇焦하시되 畢竟은 吾道不行하셨습니다以其聖
 人在時로言之하 면距今이 二千四百年以上也丨니 可謂上古時代也
 丨라 上古時代의 純朴民俗애도 道且不行이라하야고 且以輕重眞假
 로言之하으면 聖人이生存하사 親身親手로盡心力而行之로 터道且
 不行하야는 터 聖人沒後二千餘年된 漢季時代之今日에 聖人의 姿稟
 은 萬分不及한 腐儒輩가 如干四書卷을 讀하者丨면 自負自謂기 몬前
 日某國某國은皆以霸道로治國이니 吾所不取也丨라 余若臨事이면
 當以如斯如斯 告 王道로平治天下丨라하니嗚呼丨라 此等無知沒覺

輩가當初에 四書를 不見이 런들 如是 험範外妄想이必無이 야平常 험
一分子의 民格은 維持할 것 슬不幸이 其父母者니 愛子之情에 自蔽이
야 人品과 書類의 適不適은 不顧하고 四書를 教而 読之이 야 如此 험橫
想으로一生을 自誤케 험者니 可不惜哉며 又此 四書가 魯衛齊梁之
國에서 政治上事物上에 實地施行이 야 的確無疑哉 經驗이 신文書가
아니오 聖人當時에 天道人事의 正理를闡明이 시며 人性物情의 關係
됨을 裁量이 음서或對人而問答이 시며 or 按時而記述이 신者니究
其本則當時聖人의 意見書에 不過 험者니 假使堯舜이 今日를當이
사此四書를見이 시드라도 此日時代와 此日人品에 此書가 合當하는
지不合當하는지必未質定이 실터인데 至於官職政治法律戰陣과 農
業織造 商賈鑛產及漁業光學氣學理學等 千萬之節에 學問所持者는
不過此四書之讀也니 오人材存拔이 如此四書之讀不讀에 不過 험者
也니 오某學專門卒業이나 某科實地施驗이 工課之說은 初不舉論

난 봄如是 험無據孟浪 험證據가 三也니라

此三條証據의 習慣이 腦髓에 充塞이 야 頑俗을 成石 험外에 復有奇怪
罔測之俗이 야 所謂上等者流는 麻衣相書이니 紫微斗數이니 魁輿地
術이니 兼青囊秘訣이니 험는 術數를 偏恃이 야 一家吉凶을 全托而無
他營爲者也니 오所謂下等者流는 巫女之鼓와 盲者之經에 神堂佛堂
과 江鬼山靈의 灰焚香咀呑로一身禍福을 全托而無他思想이 온즉七
尺之躬을 猶不能自主獨立이 야 半任於 術數하고 半任於 巫盲者인즉
此等人種의 以國家獨立思想이 從何出來이 오며 又復所謂 白蓮敎이
나哥老會이니 小刀會이니 험는 悅類雜種이一不改悛하고 作孽萬端
이온디 今日先生之言에 二十世紀人下半記에 清國이 列邦首班에 居
혼다하시니 此言이 唇上空談이 아니면 謂何라하오릿가

黃白關係眞狀

先生이 聽罷에 兩鬢이 峴然이 야 執手撫背以足下의 三條証據이 一場

說辭가支那實況에의當호公談이라흘지라雖然이나此亦過去情況이니無足可言이어니와將來就緒를復加思量하라今此支那가雖曰頑迷하나十年以來로風教의變移호거슬見하량이면二十世下半紀에成就한明証이已爲發現호者이라大概無論何國하고地方이三千里오民族이四千萬이되고보면物之不齊는物之情이라每樣人性과風教가均一치못호者이라故로日本民族之明敏으로明治維新之初에 守舊派와開化派가各其自是호性格으로互相固執하야戰爭不息타 가風氣가漸鬪하고實業이漸通後에야頑固守舊가自相覽悟하야一 致開化하야손則此地廣人衆호支那全土의革舊淑新이엇지一朝一 夕에容易타흐리요果然支那本質로言之하면貴國俞吉濬詩에云(晉代清談驚百世宋儒眞學貫三才胡來畢境無長策交與神州拱手回)라 하야스니胡來者는即今滿洲三省과內外蒙古人이라此等邊界蠻族에게當호當호中華全體를淪喪하고도尙此心志를不變하야紙上空文

만崇尙호者이니無足可恃로티挽近兵劫을屢經호後에政府公論과 士林義理가豁然大變호자라不變則已이어니와變則通이라니通以後三十年이면無所不成이亦理之所在也이며日本名士大垣丈夫之說에 清國이萬一變而開化하면四十年이不過하야東洋에一等強國이된다호야스니此亦明見의預算일뿐더러無論何邦하고當此今日하야孰欲不變이며孰能不變이리오足下가若不信僕言이면僕이此支那의當變而不變者와當變而變者와變而不善變者와變而善變者를逐條辨明하야其利害를陳說호터이오且足下가此東土의書籍과 歷史를每不偏信云則往古春秋列國時나漢魏唐宋時代의事蹟은一切勿論하고足下生世以後五十餘年之內에耳聞目睹호事로만次第說明하노라自道光二十二年으로至咸豐十年하야支邦海岸에開港이凡十六所이라歐美豆流來하는新鮮한文物과公平한風俗이南淸一帶에潮流似八來하는아니然則支那開闢호後에新面目과別乾坤

을換起^호第一의機會也 丨로라當此時^호야廣東金田村에서洪秀全楊秀清石達開謝朝歸等이民黨으로暴動^호야十六省을犯^호며三百餘城을陷^호고十五年을相持^호았스니可謂酷烈^호民亂이라當時에民力과民權이極点에達^호았슨則宜乎四千年政府의壓制와虐待받는惡習을脫却^호고堂堂^호民格을維持^호야憲法國自由民이될思想이有^호하니대不此之爲^호고腐敗^호名義外無據^호義理를提起^호야長髮과華服으로清國을排斥^호고明朝를回復^호하니다가還被漢人之出討^호야曾國藩左宗棠李鴻章彭玉麟等의陳舊腐敗^호孫吳兵法과十八般武藝之下에剿滅^호비되았스니此는民族社會의可變^호時機와當變^호實際會^호自失^호者丨니此는當變而不變者也丨오其後林則徐^호粵督으로鴉烟洋艦二隻을焚沉^호後에英法軍艦이天津을來衝^호하니伊時滿漢兵馬가數十萬에過^호者로一番交戰이無^호고一時潰散^호야天子가下殿走에群臣이不見其影^호았스니豈非天下後

世之羞耻哉아是後廟堂之上에大議가質定되야南北洋에大臣을設置^호야水軍을擴張^호야旅順威海의砲臺를築固^호야渤海天津을翼衛^호고關東各鎮에五十七營의洋槍隊를新設^호야陸軍과馬隊를洋員으로教育^호고水師學堂武備學堂의卒業生徒를需用^호았고歐美各國에全權公使를派送^호야外交를通涉^호았슨則其無量^호經費가可謂京垓에過^호者丨라此는當變而變者也丨오如斯^호財力을糜費^호고도其所經略^호者는不過皮毛^호粧飾^호고骨節에貫通이^호되였슨則豈不可惜哉아甲午日淸戰爭으로觀之^호면聶士成葉志超豐陞阿魏汝貴等의牙山平壤之戰이可謂土崩瓦解^호작^호者丨오九連城鳳凰城海昌營口之戰과守嚴折木蓋平金州之戰에一無勝捷^호고莫不淪陷^호았스니宋慶馬玉昆은四十年強場老將이라戰鬪閱歷과智謀才器가엇지山縣有朋長谷川好道大島義昌北山平早의才不及^호者丨리오만은連戰連敗^호야遼東半部에紅心自質旗가無處不插^호았스

며 금주灣旅順으로는 하늘 위험을 뛸 더러울 때, 그 당시 수장은 黃士林, 趙懷業, 張光全, 魏汝成 등은 당시合肥李相의 心腹로 친애를 받았던 장으로, 그에게 맡겨진 책임은 自別호 되어 있다. 韓國의 전통적인 소리로, 이 일은 9월 15일에 일어난 것이다. 이 날은 韓國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날로, 韓國 해군 대대(大隊)는 靜遠艦, 遠靖艦, 遠濟艦, 遠江艦, 巡洋艦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선박은 각각 7,800t, 10,000t, 12,000t, 15,000t, 18,000t의 규모였다. 이 날, 鄭程先(鄭程先)과 方伯謙(方伯謙)은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고 후퇴할 수 없었지만, 守護(防守)하는 데에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날의 전투는 漢國의 軍事(軍事)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략적 판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大重奇是變其物而不變其人也。고變其法而不變其用也。였으나, 此는
變而不善變者也。— 오. 且馬關之約에 遼河以南과 臺灣一島를 割讓되었을 때
2億의賠金을 定歎하였으나, 此는 清國이 外交를 開한 이후에 初有한
損害로 다. 此는 時에 北清一帶에 瞳然하고 南清各般社會에
言論이沸騰한 자라. 故로 戊戌年政變이 自然釀成되어 았으나, 西太后
李蓮英之內權과 紹祿榮祿의 狡猾를 勢이 才로 험악한 行動이 있었으나, 梁啓超康有爲의
成就가 끝나지 않았을 때, 此는 等惨死와 此는 等亡命은無論東西何國하고 改革
時代에 之原有한 前例이다. — 나. 無足可恨이 아니며, 千可殺, 萬可殺은 滿
州派의 混亂과 貴族黨의 凶毒이라. 萬不當千不當한 義和團을 招集한
아. 排外이니, 斥洋이니, 慘酷한 行動이 있으나, 無端한 八國聯合
兵이渤海에 上에 登했으나, 是何風雲이며, 是何恠變인지. 金城湯池의 天
津이陷落됨은 梦想에도 不到한者이다. — 라. 自天津으로 北京에 至

속은二百六十里外自北京으로通州에至는五十里之間에金錢財貨의損害는計算으로不得成言이 아니와官人軍人民人の傷害가二百二十餘萬에至는 앗스니此等慘禍는天地肇判以來에初有한劫會也—라此日歷史를後世人이忍何目睹하는지况西安府에播遷한清帝를各國이 同議하고 北京으로依舊還御케한 앗스니此는尤極不可思擬한者—라 한자시顧我東土二十一代史記에如此한 義理와 公論은影響도不見한者—로다當此時한 앗야所謂中華天地之內에서自尊自傲한 而義理이니 道德이니 한 든頑固派의 鐵石心腸도 水消雪散이 되고百折不回한 앗야固執不通한 든端郡王과 董福祥도 心驚膽裂한 앗垂頭喪氣하고甘肅으로奔竄丐乞한 앗손則樞密院元老에 鹿傳林王文韶等의 如干橫議左論이 엇지廟閣에 容嘴가 되리오噫此空前絕後한 大劫會를經過한 後五個年之今日에 清廷上下에 心性과 物議가換易無餘한者—可謂的 實無疑로다若或清國이 大變遷이 아니면 大

禍를觸犯한 앗야清國一邦만大不幸뿐아니라 東洋全局이震蕩消殘한 酷点이有한 번한者—니足下가雖曰察時에明快타한 앗나此等大勢는必不能預度者인즉今爲足下一言之한 앗리라大抵支那三千年以來에 所謂經綸家와智謀家와用兵家의 第一要點은 敵國의虛實을窺察한 앗出其不意한 앗고攻其無備로爲兵家之妙算한 앗나니亦復想之則此出其不意와攻其無備之法이非但支那兵家之妙算이니亦無論何國何時하고舉皆兵家에妙算이되리로다然則清國이心性과 物議가變遷치 아니한 앗三면上年滿洲日俄之戰에日本의虛實을窺察한 앗必然出其不意와攻其無備之妙算으로兵不厭詐之說를 提出한 앗야一段野心으로東洋平和도不顧하고萬國公法도不顧한 앗고嚴正中立도不顧한 앗고無名出師한 앗Japan에甲午之鬪를報酬한자나苟如是면東半球에 極烈慘毒한百年風雲이不知至何境일터인데 千幸萬幸으로清國의中外人心이十分開明하고十分變遷한 앗야此等冥頑의蠻行을不作한

者 | 로 다萬一 義和團匪以前에 만 日露가 滿洲에서開仗이 되 앗드면
결코此等舉措가必無라不能할지니假使此舉措가有할량이면前頭
秩序가如左하리로다

東西洋數千年內에戰鬪歷史를考據할량이면甲國이乙國에 往할거
나乙國이甲國에 往할야戰爭할者와或甲乙兩國이一齊動兵할야彼
此所到之處에서開仗할事는有할되甲國乙國이各自動兵할야異域
別地에特來開仗할事는惟十六世紀時代에英法二國이各其兵備를
北亞墨尼加에輸送할야戰鬪할事가有할고八九年前에西班牙와美
利堅이各其兵備를非律賓에發遣할야戰鬪할事가有할나然이나彼
英法二國으로言之할면曾前에各其民族을墨尼加에移植할야領地
를作할者也 | 오西班牙와美利堅王該非律賓을或保護之할고或領
有之할者어니와當初에一無相關할든絕域異地에다가兵備를各送
할야開仗할事는惟上年淸國滿洲地에서日露兩國이開仗할事뿐이

로다當時에東西列邦은局外中立으로毫髮不動할았고日露兩國만
各自發兵할시露國은尙此西伯利亞鐵道와東淸鐵道로軍備를輸出
할者어니와日本은可謂越三國之出兵이오水陸之役을兼할者 | 로
다四五軍團의五六十萬되는各種軍備를遼河一地에다入送할았스
니雖有定算이 나豈不危險哉아必全國軍額과全國財力을盡輸無餘
矣리니以呂祖謙之將鑑博義로言之할면眞可謂浪戰이라批評할者
| 로다大抵日兵이駕海二三千里할며或四五千里할야滿洲에入來
호陸軍의作路를觀之할면朝鮮海口에仁川甑南浦龍岩浦로下陸
할者也 | 오盛京海口로는小孤山寶蘭店金州灣營口로下陸할者인
則其水陸之苦와運輸之費는不言可知로다幸有可賀可讚者는大小
戰鬪數十次를連戰連勝할는티至於九連城得利寺沙河之戰할야는
可謂前古稀有할酷戰인則其精神筋力의疲弊야夫復何言哉아當時
露軍이雖曰連敗也 | 나其全軍의主力이南北으로奉天과旅順에分在

호야尙爲勁悍호기로日兵이不能一擊破之호고軍力을亦此分貳호
야南攻北伐호는 터眼鼻莫開호者丨로다當時旅順은姑未拔호고奉
天은姑未捷호는 日에萬一清國政府에王大臣의心術이十年前갓치
未開호고端郡王과李秉衡之徒가當局用事호약 3면必然齊襄公之
報九世之讐호春秋에是之也丨니甲午之讐호不可不報라호야一邊
으로北清호煽動호되萬國公法叫做東洋平和와嚴正中立은挽近西洋
外交家의狡猾호誣說인則無足可道者也丨오出其不意外攻其無備
호兵家之第一要法이니時不可失이오兵不厭詐也라호야一邊으로
袁世凱호征東大都督을封호야關內關外兵馬를統制케호한서一派호
征南之勢로岑春煊董福祥으로數三師團을總督호야蓋平守岩等地
에서衝突호고一派호征北之勢로姜桂題馬玉昆으로數三師團을領
率호야海城遼陽方面에서遊弋호야南北에分在호日兵의背後를或
襲擊或遊擊호며或進戰或退守호량이면日兵을全數破潰치는吳호

나日兵의南北部가各各腹背愛敵으로因在垓心호境遇을難免호리
로다如此코보량이면露兵의氣勢가卒地倍勝호야旅順守將은北京
에駐紮호俄公使의代傳書鳩를飛送호야氣脈을相通호고奉天守將
은彼得京城에打電호야高索克兵을陸續出來호야騰騰호銳氣로聲
勢가益壯矣리니日兵이千萬料外에此等困難과此等危險을當호야
前遮後應호며左衝右突호야首尾不及호悲慘을當호다스리.니第一
의韜重衣甲에運輸外糧餉軍火의繼續이尤極罔涯호者丨라然則山
縣青木의韜畧호野津乃木의智謀가方便이無術호자라當此時호야
英國이日本과當初協商호할때에攻守同盟의契約이有호자라自然清
廷에強勁호交涉을提出호야公法을違背호고第三國되는蠻行을質
問호며印度의陸軍과香港의水兵을不時發送호야威海、衛로來會호
거시오法國에서는多年公法에拘碍호야有意莫遂호든今日이可謂
好機會를得호者丨로다호야西貢의陸軍과加達馬島의軍艦을一時

并發하야廈門海峽에서逼留하며第四國의態度를呈出하려이오德
義澳美四國은各其東洋에巡洋艦隊를指揮하야渤海方面으로聚集
하고均霑利益을希望하야合同條約을預備하니시오日本은此日此
機를當하則自然이國內所存한後備隊預備隊를罔夜組織하야商船
軍艦을不計하고裝載輸送하야天津으로直向하려이오清國은甘肅
四川은遠莫致之로되山東河南의軍旅와荆襄의鄉勇을飛檄召集하
야保定府로來合하려언則當此時하야朝鮮國은如此한龍戰虎鬪之
間에在하야瓮隙에湯罐갓치粉碎하는지缺唇에土蓮갓치脫出하는
지未可質定이어니와萬一에東洋和局이如是缺裂하면百年風雲이
何时可息일는지血川肉地에平和를誰議하며黃人白種의契活이無
期로다於戲하天降生民하사必無盡劉之理也丨로다故로清國이數
年以來로一變二變하고三變四變하야內修外交에停當한道理와字
宙大勢의至極한關係를十分覺悟하야嚴正中立의約章을遵守하야

日本으로滿洲에서全功을建立케하者니如此한清國를何云不變이
라하며何云未開라하리오况近日西太后의意志가突變하야今皇帝
와內情이和冲하야政事를和議하는憲政實行하诏勅이中外에頒
布가되고袁世凱張之洞鐵良孫家鼐等이憲法를實施하야上下議院
를制定하고一般國事를混融協義케하며政治의改善과官制의變通
과法律의改良과貨弊의整釐와軍制의組織等諸般事務에日々服役
하야可謂勞心焦思라하려이오南淸北淸에地方區域마다有志紳士
가學校를設立하야小學中學專門課의教授를熱心勤務하고出洋學
徒를外國에派送하야理學化學의眞境을講習하고社會上有志者와
外國에亡命客은演說과筆論으로自國魂魄을喚起케하고在外한康
有爲梁啓超孫逸仙派의革命主義가全國에膨脹하야上下社會의精神
機關이되았스니如是한諸般景況으로言之하면何謂不變이며變
而無效라하리오此는變而善變者也丨라故로僕之所料에支那가窮

而變^고 고變而通^고 앙스니 蒸蒸日上^고 야三十年이면 世界魁邦이 되리라 헛者^니足下는熟思之^할지여다

蜜唾子^니聽畢에拜謝曰先生의一場說話을 듯사온즉此支那의變遷
程度가數年以來에可謂括目相對로 소이다外交路略이尤極嫋熟^政
야今番日俄之役에一無失手^함을先生이極口讚揚^고 오시니此는弟
子도未嘗不贊頌不已^고 옵거니와先生之言에東洋局勢를一一逐條
玄^하야運籌結算^{하고} 신바를聞^하운則可謂決勝千里가如在指掌^하야間
不容髮이을지니尤不敢贊一辭나然이나既以日俄滿洲事로問題을
提出^하실진된此滿洲에既是四箇問題가有^하온데何意로一箇問題
만說明^하시고三箇問題은不言^하시니잇가滿洲에四箇問題가有^하
내에一問題는先生이已爲發明이신則其餘三問題는弟子^니一次第說
明^하오리다

彼滿洲의位置가在於赤道緯線四十度之外와六十度之內^하야長

이三千里오經線은廣이四千里가되는地方언덕氣候는寒多熱少^하
되土性이甚膏沃^하야黑龍一省은未必可稱이로되吉林奉天兩省은
種殖之利가不下於直隸山西等省也라故로愛新覺羅氏之經營天下
也에一般經費를此土所產에地面之利殖으로策應者也오四五十年
以來로朝鮮西北之民이官吏에貪虐을不勝^하야帽兒山下十二道溝
외松花江內間島에流寓^하者와懷仁通化兩縣之邊界로移居^하者가
舉皆彼土에地面之利에一種으로만依賴資生^하되其殖產이猶此綽
綽^하者—니其土利之豐裕를可知也—오以地中之利로言之^하면金銀銅
鐵鉛煤等六種이無處不有^하야無量^하財源이될테언대自開闢以來
로居民의智識이蚩昧^하야每以遊牧漁獵으로營產營業만^하였지鑛
業一事에는初不生心^하야無量^하財貨를無端이埋藏於地中者—니
現世有志於經邦者—孰不流涎者^하오以清國으로言之^하면雖曰開
明이라^하나此等營業社會가姑未發達故로視若尋常中滿人一派는

其主見이尤異하야此士가原來發祥古國인則山脈地穴을鑿截破缺
이有損於蔭德일뿐더러自南遷肇基以後로愛重南華하고忽視漠北
之情이自生하야不甚注意하는者也—오漢人一派는生長中華하고
彼地情節을未得詳知뿐더러原来華人之學問思想은自來로中原
이니神州이니하는地方만貴重하려고胡地이니塞外이니하는
地方은金塊玉崗이라도甚不貴重하는故로昔年에上海香港瓊州等
海岸을外人이請求하는時에一般廟議가一致巡同하야一請二請에莫
不聽施者는無他라此等邊外之地는無足掛齒로義理와意向이貫徹
호者—라故로彼滿洲分支那에對하야屈指하는所重之地가아니되는
形勢이니此는滿洲之一問題也—오

俄國이烏臘嶺以東으로國土를廣占하야曠漠한西伯利亞를沒數이
領地을作하야版圖에入籍하는斯니一端荒蕪한原野에港灣이無한
則非但國計에欠点이라可謂有志者の急先注意하는者—로다故로咸

豐七年에吉林省의所屬한海蓼威港을盡力割取하는者—니伊時無智
한清人은亦以邊外不關之地로容易히許給하는者—로다雖然이나此
港은凍港이오即非溫港印則臨時軍港으로權停用之하야若干礮臺
燈臺는設備하나造船工廠의武備所나船舶輜湊의阜塢가別無한즉
自然이奉天以南으로牛莊이나旅順等地에溫港을經營하는者—로다
萬一에旅順大連等溫港을腕力으로勒取하는同時에는哈爾賓以南
으로數千里되는土地가自然이此範圍에牽引이될지니臆念이到此
則豈可一日忘置哉아當此時하는야千萬料外에甲午年日淸戰爭이忽
起하야春帆樓條約에遼東半島가日本에歸하는지라以若俄人の壑慾
斗俄國의事勢로何能忍耐哉—리오三千丈業火가腦裡에衝出하야
當日로東洋艦隊를不時組織하고德法兩國을甘飴聯合하는야橫濱海上
에서大抗論을提出하는야遼東半島를還付淸國하는야순수內容은何
如든지外様으로觀之하는면俄國의當日舉措가可謂天下之公道也—

오公法之正義로 라無過數年호야敏滑호手段으로俄清銀行을設立
호며溝帮子鐵道를建築호고旅順口를租借호後軍港으로擴張호서
老鐵山黃金山에礮臺와燈臺를建設호약스니然則旅順以北으로許
多호鑛山과森林과鐵道等이俄國의所有를作乎아否乎아當日勢力
으로觀之호면一紀가無過호야左臂를伸張호면朝鮮全國이其掌心
에入호더이오右臂를伸張호면清國黃河以北이亦其掌心에入호자
라况聯合軍으로燕京에入호약든十一萬의軍隊가東清鐵道保護를
藉托호고滿洲에逗留호時에駐俄日公使栗野慎一郎의談判호든唇
舌이幾乎弊焦호지로되俄國이一向食言호고一向添兵호니此는眼
下에東洋三國이不有害은且置호고歐美列邦의公論도亦是耳朶邊
에過去호者一라當此時호야清國一帶에文病大醉者의挑源春夢은
勿論호려니와日本에具眼有志者의腸肚가盡裂耶아不裂耶아裂者
는死矣오不裂者는生矣나其生者는爲何오十載星霜에吞聲飲恨乎

인지四十萬의常備兵과二十五萬噸의軍艦을組織擴張호다더니海
洋島外雪夜中에決死隊가獻身호며鴨綠江上火炮中에近衛團이爭
先터니二箇年이未過호야二百高地鐵條網에降旗가걸녔스며長春
以南大道上에凱歌를불닛스니此는滿洲之第二問題也 一 오

旅順大連의歴史로言之호면光緒登極以後至清國에서日本의强盛
호을忌憚호야巨額으로特別이築固호者러니甲午遼河之役에日兵
이血流力戰호으로馬關條約時에清國에서光明正大이日本에割讓
호거슬俄國이干涉기를清國에土地를强占이不可타詰迫호야清國
에還付케하고租借로改稱호고自己가強占호약순則俗所謂收養女
로子婦를作호者一로다伊時에清國에所遭로言之호량이연割讓과
租借가名稱은雖異호나非吾之所有기는一也 一 오日本의所遭로言
之호면俗所謂捉蟹放水가될뿐더러受侮於人아莫此爲甚이로다忍
忿耐辱호者一十年今日에三十萬民族을死傷호고二十億金錢을糜

費 하 야露兵을 大破 하 고旅順을 取得 하 았스니當此今日에雖有一百
野心之露國인들孰敢開嘴於日本 하 야 曰是曰非哉아壯哉라日本이
여快哉라日本이여大丈夫의光明正大 하事業이오獨立國의磊磊落
落 하功勳이로다然則日本이今此旅順을將何以措處乎아名稱이不
可無인則清國에租借라 言는지日本의領地로 言는지吾輩의未可質
定이어니와大抵俄國이旅順口를借用할時에蓋平海城遼陽奉天開
原長春哈爾賓齊齊哈爾에다가直線으로勢力範圍를自作 하 야西伯
利亞貝加里湖까지連絡 하 았슨則其心術을推測 하 면隱然이滿洲中
心을貫徹 하 야自國勢力線을作 하 者—어니와今此日本은旅順을使
用 하 는方法을何如히酌定 하 는지大連灣海洋島로朝鮮海峽을衝過
하 야立海로門司港에連絡 하 래는지朝鮮國에京義京釜兩鐵路가成
立이되약순즉大孤山과守岩을通過 하 야安東縣沙河子로龍灣線에
連接 하 래는지姑未聞知어니와萬一에俄國의野心과 갖치陸地에다

勢力線을擴張 하 탕이면朝鮮國은自然이其勢力中心에處 하 야保護
國이될지니朝鮮으로保護를作 하 고보면朝鮮의狼狽는姑舍 하 고
本의偉大 하 聲名과正大 하 功業이一朝에烏有를作 하 야蠻行의俄國
과難兄難弟가될지니苟如是則乙未年日清約章에朝鮮自主란句語
와癸卯年日本詔勅에獨立擔保란金石之文을日本政府에서는雖欲
抹殺이나此金石之文이天下萬國之人의耳目을經過 하 고韓清兩國
人の肺腑에捺印이되약스니此肺腑에捺章된金石之文은雖上帝라
도卒莫洗滌 하 자라然則韓清人士가日本을恩人으로歡迎耶아仇讐
로疾視耶아近今西勢東漸 하 야黃種白人이種族을各自愛護 하 야各
其樹黨 하 는此時에黃種의韓日清三國人心이裂缺 하 야不相和睦이
면是는骨肉相殘과無異 하 者—니韓日清政府의意志方畧이如何玄
는지微嫌과細利는切勿思念 하 고大勢와巨利를各自計圖 하 者—今
日也—니此—滿洲之三問題也—로소이다

先生이閑龍에長嘆曰方今天下事를思量하면可謂寧欲無言이도다
 近日東西各邦의所謂交涉이니親睦이니協商이니密約이니호는諸
 般行爲를보량이면其言語는無非菩薩이로타其手段는舉皆虎豹로
 다噫라泰西古史는且勿論하고東洋近史로言之하면非律賓이原來
 西班牙의所屬이러니美國에서佛心을大發하야羈絆을벗기고獨立
 을식여준다하더니體面을不顧하고雙手로慢取하야自家器物을작
 하얗고法國은安南의內亂을戡定하하고率軍入境하더니公法은
 不顧하고保護國으로認定하얗고清國에서日本에讓與한遼東半島
 를俄國이公談을提出하야清國에還付한다하더니租借로改補勒據
 하얏고日本이馬關條約第一條에清國에關係된朝鮮을獨立으로確
 定하더니近日에京釜鐵路와京義鐵路를建築하야隱然이勢力を擴
 張하얏손즉今日旅順以東으로陸地線路가擴張하니同時에朝鮮이
 엇지其範圍를特脫한다하리오嗚呼라世間에所謂萬國公法이란것

도亦是有名無實호紙上空文으로清國에所宗하는詩書經傳과恰似
 캐되얏스니無論何國하고自家를自助하야自強力を維持치아니하
 면保國지못함은現世에公例가된者니라足下도亦朝鮮人인則今日
 朝鮮이日本에羈絆됨을엇지痛恨치아니리오마는self強力으로自立
 지못하고보면何厚何簿이無할거시假使滿洲之役에日敗俄勝하얏
 드면俄國은朝鮮에有何佛心으로獨立斗自主를侵害치안코幸福을
 亨有케하오리오昨年에龍岩浦勒占하드行爲를보량이면必然全國
 을如膾吞下할者이니夫復何言이리오今以現世景況으로言之하면
 五大洲내六十九國之中에大之若英法俄德等諸國은每以兵力民力
 과物力財力으로各保其國하자는 1 오小之若瑞丁荷白等諸國은每
 以道徳力學問力으로公法을謹守하야各保其國하자는 1 아니와朝
 鮮은有何實力이며有何能力하야自保其國할는자四千年自主之國
 으로中間에如干蒙古契丹等之侵害가有하얏스나此는彼此均勢之

지에暫次優劣로競爭한者丨어니와今彼日本은全體가特色이有한
活物인즉如干優劣로較準한者丨아니니國家運命은且置하고民族
의前塗가十分憂慮한者丨라韓半島靑年은猛省而速進步한자이다
蜜唾子丨聞歇에不勝傷感한야嗚咽對曰天生蒸民而必有司收은定
合理致은되今日東亞가值何否運한야大聖人大英雄이姑此不生한
야無罪生靈으로慘惀한劫灰에陷溺케되으니天何無心이胡至此極
乎잇가

先生이曰足下가何其懵然耶오英雄이何云不生이리오今彼日本에
英雄이輩出한야政治家에大隈重信伊藤博文等諸人과軍人家에山
縣有朋大山岩等諸人이無非蓋世英雄이라其英雄事業을較準한양
이면德國裨斯麥과義國加富爾에遇한者丨로다何則고裨斯麥은日
耳曼을聯邦한야微弱한德國으로今日强大한國體를成立한양고加
富爾는屢世腐敗한양든義大利로少年國體를幻成한양스니此二人

도亦是有名無實한紙上空文으로清國에所宗한는詩書經傳과恰似
케되한양스니無論何國하고自家를自助한야自強力を維持치아니하
면保國지못한은現世에公例가된者丨라足下도亦朝鮮人인則今日
朝鮮이日本에羈絆됨을엇지痛恨치아니리오마는self強力으로自立
지못하고보면何厚何簿이無한거시假使滿洲之役에日敗俄勝한양
드면俄國은朝鮮에有何佛心으로獨立과自主를侵害치안코幸福을
亨有개한오리오昨年에龍岩浦勒占한三行爲를보량이면必然全國
을如膾吞下한者이니夫復何言이리오今以現世景況으로言之한면
五大洲內六十九國之中에大之若英法俄德等諸國은每以兵力民力
과物力財力으로各保其國한는者丨오小之若瑞丁荷白等諸國은每
以道德力學問力으로公法을謹守한야各保其國한는者丨어니와朝
鮮은有何實力이며有何能力한야自保其國한는자四千年自主之國
으로中間에如干蒙古契丹等之侵害가有한양스니此는彼此均勢之

지에暫次優劣로競爭한者—아니와今彼日本은全體가特色이有한活物인즉如干優劣로較準한者—아니니國家運命은且置하고民族의前途가十分憂慮한者—라韓半島靑年은猛省而速進步한자이다蜜唾子—聞歇에不勝傷感한야嗚咽對曰天生蒸民而必有司收은定理致온터今日東亞가值何否運한야大聖人大英雄이姑此不生한야無罪生靈으로慘惀한劫灰에陷溺케되으니天何無心이胡至此極乎잇가

先生이曰足下가何其憎然耶오英雄이何云不生이리오今彼日本에英雄이輩出한야政治家에大隈重信伊藤博文等諸人과軍人家에山縣有朋大山岩等諸人이無非蓋世英雄이라其英雄事業을較準한양이면德國裨斯麥과義國加富爾에過한者—로다何則고裨斯麥은日耳曼을聯邦한야微弱한德國으로今日强大한國體를成立한양고加富爾는屢世腐敗한양는義大利로少年國體를幻成한양스니此二人

의事業이未始不英雄之班에居魁한者—라雖然이나凡國家의成蹟은一則風氣를擊判한者—오二則實力を積蓄한者—니裨斯麥과加富爾는各其自國의由來한 든風氣와民志와 實物과學問의基地를資憑한야事半功倍의 中興事業을成立한安則支那古人의 范蠡功勳에不過한者也—오伊藤大隈山縣大山岩等諸人으로言之하면本國에傳來한 든風氣와民俗이歐洲가아니오物質과學問이歐洲가아닌則文明이란苗脈과富強이란基本은一絲半点도 素無한者인데風氣를肇作한 고物力을積蓄한야生地突出한國體를成立한야歐美列強과對等並峙한양스니此는農業之勳이라支那古人에商鞅의維新과恰似한者—로다或云日本이往日에如吉田松陰과月照僧의英雄이時勢를造成한양고時勢—造한後에그時勢가三條實美과岩倉具視等諸英雄을造成한양는則今日伊藤山縣等諸英雄도亦是時勢가造한英雄이라한자라大抵人間營業家로譬之하면若干多少의資本이有한者—能滑한

手段을 사용하야 積小成大하거니와 資本이毫無
한赤手空拳으로 東貸西取하고 構虛架空하야 實業家를 成立하니
難호者—니 國家란 거손 風氣와 民智가 其資本이 되야當局事爲人의
川多少基本을 作하노者인데 日本四十年前에 風氣의 文明資本과 民
智의 實業資本이 有하야當局人の 事爲資本을 贈與하았는가 可謂
無本錢大商이라 豪자라 故로 伊藤桂太等諸元老는皆是當時無資本
英雄이라 하지 아니치 못할지니라

蜜啞子—憤然對曰 先生之言이何其不審者乎 且 가夫英雄之道는 光
明正直으로爲經線하고 能大能小로爲緯線하야 繁磊落落할 때에는
如光風霽月하고 紛糾密密할 때에는 如鬼神莫測하야 萬里前途에 勝
敗를 質定하고 百年國計에 利害를 判斷할 시勿論 何事하고 臨事에 先
次主点과 客点을 分判 質定하고 後에 主点으로爲綱하고 客点으로爲目
하는 니 主点客点의 綱與目이 未爲分立하면 非徒無利 라害必接踵하

는者—라 故로 大英雄의大事業은 主点客point의 綱目이 分明分立하되
人所難見호者—로다 昔에 張良이 天下에 驅馳하야 漢室를 沪業한 事로
一世가英雄이라 稱道하는者—나 以其英雄된 張良의 心志와 事蹟을
考評하량이면 劉氏를爲하야 項羽를 擄하고 天下를 定하야 功勳을樹
호이 莫大한 行動이로 되 此는客point에 不過호事—오 秦國을 滅하야 祖國
의仇讐를 報復호이 即主point이 된者—라 夫英雄이 臨事하고 主point客point
을混融未判이면 不得謂眞英雄이라 豪자라 彼日本之當局諸人을眞
英雄이라 稱道하는지 假英雄이라 稱號하는지 未可 質定이 어니와 今
日東洋에서 國家를 改革하야 文明에 進就하며 事物를 擴張하야 富强
을計圖하는千事萬事が 究其實則皆是客point에 不過호者也—오 西勢東
이一致團結하야 西勢東漸의 强食弱肉하는 禍患을 防禦하는 第一主
point에 綱이 됨은雖尺童이라도 瞭知할 터인데 以若日本之當世英雄으

로何若是憎然하야主客의辨別과綱目的次序를茫然不知하는지昔
年에日本의豐臣氏가無端이朝鮮을襲擊하는事를今日에公言之하
량이면蠻行이라할터이오近前에琉球를吞并하는事를今又言之하
면亦是狼心이라할지로다雖然이나誰某든지我家勢力이自足하량
이면蠻行과狼心을엇지顧忌하야我의壑慾을不充하오리오는每
樣勢力이不及하거나時局에牽引이되거나公義에抵觸이되야火慾
을發展하昊호는—라秦始皇과拿破崙의征伐當時에傍觀者와被滅
者가孰能開口하야蠻行이나狼心이나抗議호는—有하며我亦蠻行
狼心을非不知也—로되時至則行之호는—니孰敢對手抵敵호는—리으
然則日本이當初에西鄉隆盛의征韓之議를受用하야發兵伐韓하야
幸而取勝거든長驅大進하야遼陽奉天을占領하고兵分二隊하야北
守興安嶺하며西攻山海關하야면成敗利鈍은未能逆睹로되磊落
英雄의快濶手段은될리인디不此之爲者는主客의分明하则秩

序를不可不審慎이오時局關係가重難하則利害를不可不較計호는
—라故로今日日本이東洋에偉大한勢力を保存하고英雄의名號를
得稱호는—나然이나今日朝鮮에對하야萬一蠻心을使用하야國權
을侵害하든지利益을勒奪하든지格外舉措가有하량이면是殺人
에以梃與刃이無異호는—라當今日本勢力으로兵馬를整頓하야朝
鮮과雌雄을判決함이過非極難인데索隱行怪로苟且費神하야人權을
凌踏하며國體를侵削하야千年古邦으로消融殘滅하량이면外面
은粧飾이될듯하나內容은激衝을
을
公眼所睹와公憤所發에友愛가頓絕하리로다然則蚌鵝를自作하야
漁人을苦待하노格이니可不痛哉며可不惜哉아嗚呼—라四百年以來
로歐洲各邦에民族의活動力과航海力이大發하야東南諸洲의船舶
이無所不至하야奪人國滅人權을有若義務하야無算한利益을任意
吸取하서土地鑛產이며鐵路森林等許多關係로或公法을依憑하야

或兵甲을 사용하야百般侵害가無人不經하고無國不當이로되東洋
민족은雖一國이라도歐洲一隅에入去하야寸土尺地를窺窬치못하고
歐洲一人에對하야分權銖利를侵奪치못함은五大洲上에人獸草
木이所共知者也 라千萬料外에日本民族이自修獨立하야歐洲第一
強國俄羅斯를往年滿洲境上에서大破驅逐하고土地를割取하며賠
罰를定歎하았스니可謂千古에稀罕한事業이오萬邦에紀念한表蹟
이라所當東亞百國이一齊歡迎하고一時崇拜하야栢悅之忱을表示
흘러인데姑此不爲者는 東南諸國의識見이矇昧하고靈覺이未快하
야尙無發起뿐더러日本의動靜이殊常하고秩序가失當하야隣國에
騷雲을自起케하는 1라何以言者오去番에 小村外相이華盛頓에委
往하야和約을結定할時에 権太半部를約章에立하았스니此는白
人種의所有物일뿐더러戰敗國의罰秩인則容或無怪로티至於韓國
내에優越權이란條款은可謂無據하고失當한者 1로다 韓國이原來

俄國의所屬國이아니어든俄國의求和하는罰款中에韓國이有何相
關이올지昔年馬關條約時에는韓國이本是淸國에關係가有한邦國
인故로該約章에干涉이된다하려니와韓國과俄國은可謂風馬牛之
不相及이온되由何故而挪入於此約章인지日本이韓國에對하야眞
情所大慾이有흘진디今彼日本勢力으로何如이周旋하든지自家가
自己手段으로自由自行흘티인데何嘗苟且이數萬里外에歐羅巴之
白人種의約款中에添入이되리오弟子의心中에는十分疑訝이온
先生의心中과天下人의心中에는何如하울는지오且美國大統領
이彼和約에仲裁之主가되았스니萬一에韓國이歐美間에處在한邦
國이면들必是愛黨之義로大驚小怪하야萬無應從일터인데韓國은
係是黃人種中에一分國인故로吾不相關이라하야必是任他而不問
者이라嗟呼悲夫라弟子之所大望이絕且斷矣로다頃者에日本이滿
洲에서勝捷하든日에弟子 1聞報而獨喜自負하야日人보다百倍舞

蹈^수 온^는 日本 政府 가 將來 政略 을 順序 로 就緒^수 땅 이 면 東洋 平和
 가 萬年 無窮 壽命 노 自度^수 고 喜不自勝^수 者 । 라 何則^고 日本 往古歷
 史는 且勿論^수 고 四十年 維新 以來 史로 反觀之 라 且 國內 民族 이 自相
 不睦^수 야 各其黨派^을 至^수 命을 等棄^수 以^수 攻擊^을 爭鬪^을 自爲能事^수 앗스
 니 此는 國內 競爭 이 라 稱號^을 者 । 라 及其 甲午 年에 清國 과開仗 이 되
 앗스 니 是는 外交 競爭 이 라 名稱^을 지로 以^수 外交 競爭 이 既生^수 後에는
 向日 同室 操戈^수 고 按劍 相視^수 든 國內 競爭 이 一朝에 自相和解^수 야
 混成 聯合 으로 一塊愛國黨이 되 앗스 니 此는 人情之順序 也 । 오 物理之
 之自然也 । 라 又於 再昨 年에 俄國 과開仗을 했고 보면 是는 人種 競爭이
 라 可稱^수 而^이 人種 競爭이 既生^수 고 보면 楚越이 同舟에 仇讐가 同
 心이^라 以^수 清日兩國의 外交 競爭이 亂仇讐心情이 一朝에 水流雲空에
 歸^수 야 亦是 混成 聯合 으로 一塊愛種黨을 成出^수 앗스 니 此亦 時勢之
 自然이 人情之順序 로 以^수 此日 俄之戰에 伯們 과 同色되는 黃人種

이得勝^수 고 異色되는 白人種이 喪敗^수 者 । 리 오 故로 聞報而 手舞足蹈
 흠者 । 라 然則 日本의 將來 政略이 何에 在^는 지 弟子 膾料^로 自筭^기
 는 現今 亞洲 之內 同我 黃色人種 中에 安南國이 三十年來^로 白種 法國
 에 以^수 束縛을 被^수 야 萬丈 苦海에 陷落이 되 앗손 則豈 不戚哉^아 同我 黃
 種이 愛黨之心이 勢不無之^수 데 愛黨之義를 勢不知^리 오마는 現彼
 清國은 南酬北應에 眼鼻莫開^을 則念不及他者也 । 오 今我 朝鮮은 兵微
 將寡^수 야 我躬不閱^을 以^수 他尙何說哉^아 當此 今日에 伯們 之 同種 日本
 이 特地 挺生^수 야 文明富強이 虧傑于 東洋^을 者 । 라 數百年 艱屈^한 黃
 人種 之 代表로 數百年 行惡^수 든 白人種 之 先鋒 俄國을 大打擊을 했
 스니 幸莫大焉이^라 오慶莫大焉이^라 然則 日本之 此舉 以^수 顧我 黃色人種
 界에 第一義務가 된者 । 니 若以 第二義務로 言之^을 땅이^면 軍艦을 東
 京灣이 進舶^수 以^수 陸軍을 臺灣島에 出駐^수 且大使을 巴里京에 派送^수
 야 大議^을 以^수 詰駁^수 且公法^을 以^수 裁制^수 야 安南의 苦況을 涵救^수 且法國

의 官吏를斥遣하니 이면 日本의 勳業이 何如하니 名稱이 不能호뿐不啻
라 現今 德國之 膠洲灣과 英國之 威海衛는 日本의 赫赫한 公義와 堂堂
한 威信에 自然 懈服이 되야 自相解歸한 터이니 日本이 第一步에는 俄
國을 大破하고 第二步에는 法國을斥遣하고 第三步에는 英德이 解歸
한 터이면 日本의 巍巍한 功勳이 天地에 充盈도 한 뿐니와 從茲以後로
는 東洋列國이 咸服感應하야 至於 利益上 權利上에 日本이 開口 則莫
不應從矣 리니 日本의 威信과 勢力이 果如何哉야 東西球天地肇判以
後에 第一等大事業이 되온은雖三尺小兒라도莫不知悉이오 莫非預
料者이 온디 千萬意外로 滿洲勝捷하든當時에 最近最親한仁弱同種
의 朝鮮을 向하야 新條約을 構結하야 人心을 驚動하고 國權을 削取하
았스니 先生의 稱道하시든 日本에 大英雄이라하시든 院老의 事爲가
果如是者乎 잇가 譬喻之하면 萬金資本家가於賈於商에 適足得利할
터인데 不此之爲하하고 貧寒하고 幼穉한 同腹舍弟의 家에 來하야 廚中

에 單一個의 食鼎을 奪取하노는 格이오니 是何忍行이며 是何忍言哉아
이 此弟子之言을 當世所謂開明家나 知識家에서 批評하니 이면 日本
이 泰西에 對하야 此等妄舉을 行하면 泰西가 豈可默視하리오 必也 英
德法俄가 無筭한 兵力を 輸出하노는 日에는孤立無依한 日本이 何能支
保哉아 한자나 此는 不學無知한 識見이라 日本이 真有是舉하야 聲蹟
파物望이 東半球에 充滿하니 이면 爲先清國朝鮮安南緬甸暹羅等列
國에 愛種社會가 成立하야 日本으로 社長을 薦定하고 一團黃種이
致同情으로 東西를 計界하야 黃白이 分立하니 此歐洲白種이設或輪
船大砲과 馬步陸軍을 無數使用한다 드리도 黃種은 小無懼怯한 것 시
緬甸安南朝鮮三國은 兵備가 不多한 즉 心神力만 團合한 것 시오 清國
과 遷羅는 其水陸兵力이 足히 一隅을 抵當할 者니 오至於 日本은 今後數
年으로 兵備를組織하니 이면 軍艦이 大小并하야 一百五十隻四十萬
噸은 自足한 터이오 陸軍으로 言之하면 現役隊에 步騎砲工과 後備預

備와衛生隊與憲兵隊를 합而計之^하면八九十萬이라도 自足出張일
시 인즉何懼之有哉리오若或黃白人種이交誼가裂缺^하야 東西에 分
立^하고 英德俄法이聯合大舉^하야 千隻軍艦과 百萬陸軍이 一時出來
할^하야⁺無足可畏者^하라何則고苟或黃白人이 猶角之勢를 成
하는日에는 白人의^하는 五箇欠節이^하되^하黃人의^하는 一箇欠節도
不有^하온 즉以其白人之明으로何欲生釁於東洋者哉아的確^하五箇
欠節을 次第說明^하오리다黃白人種이 東西로 分立^하는 day에는印度
全國이何欲含默而不動哉아必然乘時掘起^하야獨立이니自主이니
하고 大騷擾를作^하려^하印^하度가擾動^하
고 보면附近列國에阿富汗俾魯士等도必不安靜^하야白人事爲^하障
碍物을作^하望不啻^하南自新加坡香港으로至上海楊子江內地^하야
白人의勢力線과財力線의連絡^하者^하亦此恐惶情態가不無^하者^하
니此^하白人種의^하二欠節也^하오太西가雖曰富強^하고 西伯利亞大鐵道

가雖曰完備^하라도數三萬里長程에陸軍百萬을運出^하량이면必然經
年閱歲^하분더러輜重軍火의運搬經費를何以定筭이며首尾錯雜에秩
序未定은不言可知也^하오且主客之勢의以逸待勞는在所難免矣리니
此^하白人의^하三欠節也^하오軍艦千隻이^하言辭에는容易^하나使用에는極
難者^하라凡船舶이雖曰水上에泛在物이나戰鬪用時에大陸海邊의
完實^하根據地가無^하면便是無用物이니歐亞가各分^하고 보면白人
의軍艦이東洋에서^하何處를指向^하야軍港根據地를作^하다^하리오此
1白人種의^하四欠節也^하오泰西가雖曰至富至强이라^하도萬若水陸
間에日本과開戰을^하량이면清國大陸에何處든지依托^하야接足지
안^하크는動作과方便이不能^하者^하라故로清國이今雖未開^하야外人
의侮蔑을當^하는者^하나東洋之上에何國을勿論^하고相來相戰^하는
時에^하는其勝敗가清國의運動如何에全係^하하려^하인즉此^하白人의^하
欠節也^하라白人에게는此^하五個欠節이^하有^하고黃人에게는此^하五個欠節

이不有호티 彼日本의 內閣政略이 西勢東漸호야 强食弱肉호는 主点
은不顧호고 目前蠅頭之利의客點만是耽호야 韓清兩國에 睞義를 大
失호고 東洋半球에 大業을 失時호니 大英雄이라 卍院老의 性情은 實
所未解로 소이다

先生이 聞罷에 笑曰夫難測者는 英雄의動靜이라 英雄이 謀事에 必先
察時機호야 時機가 不至면 自不妄動호니 故로 劉皇叔은 閉門種菜
호야 以待時至호시고 王景略은 擊退桓溫호야 以待燕病호 앗스니 日
本諸英雄之動與靜은 眞箇推測호 難호者 一 라去甲午乙未兩年에 朝
鮮維新事務에 對호야 日本이 全心致志호더니 乙未冬에 李範晉李允
用之作孽로 朝鮮과 俄國이 忽地에 密接이 되 앗슨 則當時忿懣을 能能
忍耐리 오마는 少不動念호고 遷延經過라가 實力이 完成호고 時機가
來到後에 仁川海上에서 初砲를 發호고 鐵嶺後麓에서 終砲를 止호 앗
슨 則日本의 智識으로 此日에 西勢東漸이 主点됨을 何嘗不知리 오마

는必有所待호야姑此不動이 아니와 至於韓清兩隣에 行動이 殊常호
은 僕도亦此未解者 어니와 後日에 日本이 西勢의 主点으로 有事之時
에는 清國과 業寃되는 原因이 有호티 인데 此는 世皆未察者인 則今姑
言之호리라當初에 俄國이 旅順口를 領有호思想이 腹中에 膨脹호되
列邦에 公眼이 自在호 則世人의 攻駁을 獨當치 아닐思想과 別衆호欠
節을 掩護호 計策으로 故意로 德國을 激動호야 先次膠洲灣을 强占케
호고 繼續호야 自己가 旅順口를 領有호者 一니 伊時에 英國은 그 눈치
를 擾得호고 威海衛를 權借호며 法國은 福建省에 港灣을 請求호고 義
國은 三門灣을 提唱호 앗스니 並前에 英國이 朝鮮國全羅道巨文島를
自占호 時에 俄國이 絶影島를 借得호 則 英國이 俄國의 絶影島借得호
을 忌憚호야 自己所占호 巨文島를 還退호고 俄國의借得호 絶影島를
沮戲호 앗스니 若此호 舞臺를 보량이면 白人種의 眼目에 는 韓清兩國
이總히 不有호者 一久矣 뛰더려 在傍호 日本도 亦是孩提로 看作호야

此等駭妄을任意恣行한者——이나와數年以來로清國이十分開悟한 야
此等恣行은更不受한 려니와日本이這間消耗한 경費가其麗不億인
대不可不蒙古以東으로關東一帶를 和衷妥協한 여야 商工의 利益을
計圖한자니然則北洋一帶와關東一帶를 注意하고 愛護함이日本이
十倍於清國인 則清日의 關係가如此牽引된 今日에 最有憂患者는 美
國이 是也——라何以言者——오 美國歷史로 言之하면 東半球에 處在한 야
開國이今爲一百三十年에 富裕가 世界에 一等으로 屈指한 되洲外를
向한 야 土地를 占奪한 거나 征伐에 從事한 거나 此等危險은 別無하고
商工二業만 全主한 邦國인 대 挽近歐洲各邦에 商權과 工業이 舉皆
擴張이 되야 均勢아니된 地方이 別無한 즉 自家의 商業과 工術를伸張
한려면 太平洋一帶에 無過한者——라故로 數年前에 菲律賓에 對한
야비로 소蠻行을肆用한 았고 至今에 全清一帶에 商工을伸張한 랴고
到底注意한 데 日本도 今日에 第一步의 商工業이 亦此東清一帶

에서發展이 될지니 日美兩家의 交誼가雖曰敦密이나財利上和衷은
理無所在也——라若使清國으로早自開明한 야 自國內에所有한 利虧
와財源을他人의 세 讓奪치 안코清國民族이 自擔組織이면無事한 려
니와不然則日美戰爭은 在所難免이나太平洋上에無邊風雲의 變色
이遠則十年이오近則五年矣——라此時를當하고 보면 清日兩國間에 特
別한 關係가生한 야可謂五百年業冤이 될지니足下가 能知之否아
蜜唾子——沉思良久에恍然覺悟而對曰先生은可謂人世上明哲아로
소이다萬일美가構黨한 야太平洋의 風雲이 變色한 량이면其戰略
을指的한 야運籌가極難한 되弟子——今日先生之前에서愚昧한 智識
으로東洋前頭情形의 實況을說明한 오리다大抵歐洲列邦이數百年
以來로兵農工商의各項伎倆을極力競爭한 야均勢기로爲主함으로
雖文學禮樂이라도謙讓之風은毫無하고全혀競爭之心만養成한
—라故로各其富強이可謂日就月將한 셔個中에俄國이尤極甚焉하

야彼得帝의遺旨를一遵實行하야其跋扈驁猛이一世에特峙흔지라
歐亞兩洲에其勢力이無處不及하야大小列邦이各被其害호되諸國
이敢怒而不敢言者는畏其勢力之勁悍하야艱辛捱過而已흔者丨라
假使列國이支那六國時代에合從之術을取用하야連合而伐俄하야
三면如何할는지且無蘇秦之遊說者의實心周旋에奈何오左思右度
에別無良策터니當此時하야東海中의日本이維新自治三十年에自
號爲强大國이라하되歐洲眼目에는未必屈指者인대甲午秋風에遼
東大陸에躍上하야自家에十七倍되는有名한中華大清國을一拳打
倒하고白質紅心의日章旗를絕東大陸上에揚揚高揭하는지라歐洲
一方이莫不瞠目하야拭目相視則分明한剽悍強種이라當時歐洲에
一致한思想이今我泰西에有一俄國하야每相不安인대又彼亞東에
復有日本인즉將何計圖리오하야別般注意하든초에日俄가自相構
築하야將欲開仗하며聲明于列邦하는지라當日列邦이莫不暗喜曰

兩強이相拍이면一強이必摧矣리니我不用力而渠自相摧가豈非列邦
之幸福耶아日勝俄敗도列邦之幸也丨오俄勝日敗도列邦之幸也丨
니可謂借曹操之箭하야射曹操也丨오以蠻夷로攻蠻夷也丨로다하야
一致同聲으로嚴正中立하고壁上에楚戰만觀看하는者丨로다果然一
强은摧折하고一强은得勝하야스니若使得勝하日本으로益富益强大
면列邦에患害됨이亦不下於俄患이라하야老猶能猾하手段으로華
盛頓媾和談判席에서小村日使를籠絡하야若干海島地段과破船鐵
道等殘物로賠償에다排列하야日本軍費를磨勘하는체하고鉅額의
賠款은全廢개하야스니此는無他丨라同色의私情이不無흔者丨라萬
一에日敗俄勝하고華盛頓에서談判을開催하야三면日本에賠償이
엇지如此畧小하리오二十億의徵金은在所難免흔지니世事의公不
公은推此可知로다平日에俄國의侵害가殊極痛憎하야各自嚴正中
立而不相救助는흔지나既是逢敗於黃種하고事過後結局之地에엇